

에이즈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것은 사회정의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에이즈 예방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회에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면 감염인들이 감염사실을 숨기게 되고 은둔하면서 에이즈의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감염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따뜻하게 포용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김준명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
병원 감염내과 교수

얼마 전 에이즈 감염인 중 5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게 드러났을 때, 모 신문에 다음과 같은 칼럼이 실려 몹시 당혹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 칼럼 내용은 ‘에이즈 감염자는 시한폭탄과 같다. 당국은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 완벽한 관리망을 구축

해야 한다.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 전자칩 이식을 통한 원격통제도 검토할 만하다’는 것이었다. ‘시한폭탄’이라는 단어도 지나쳤지만, 피부에 전자칩을 이식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비인간적 발상이다.

아니나 다를까 감염인 단체에서 몹시 흥분해 그 신문사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결국 신문사가 사과문을 통해 에이즈 감염인들에 대해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었음을 시인하고 정정과 함께 사과함으로써 문제가 일단락됐다.

매년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유엔에이즈기구(UNAIDS)는 이 시기에 맞춰 에이즈에 관련된 한 가지 주제를 설정하고 있다. 금년의 주제는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염인들이 감염사실을 안 후 본인이 먼저 주위 가족이나 직장, 사회로부터 고립하여 은둔하는 경향이 있어 아직은 미국 등 선진국처럼 직장이나 사회에서 잘못된 편견 속에 부당하게 대우받고 차별받는 일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에 언급한 대로 감염인을 보는 사회의 시각에 편견과 차별이 내재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에이즈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질병이 아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일반인들은 에이즈 감염인들을 도덕적·윤리적으로 문란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집단으로 보면서 주위나 사회로부터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본인이 치료하고 있는 두 명의 감염인을 소개하면서 독자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감염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생일날 친구들이 축하파티를 열어 주면서 총각따지를 떼어준다고 사창가에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생애 첫 성경험을 갖게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이때 에이즈에 감염되고 말았다. 두 번째 감염인은 어엿한 집안의 규수로서 대학 졸업과 함께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돼 에이즈에 감염된 것을 알게 됐다. 조사 결과 남편으로부터 감염이 됐고, 남편도 결혼 당시에 본인이 감염된 것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두 감염인의 경우 어느 누가 그들을 향해 추호도 용서받지 못하고, 조금도 동정의 여지가 없노라고 감히 손가락질할 수 있을지 심히 궁금하다.

향후 에이즈는 제3세계에서 하나의 성병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다른 성병과 같이 확률에 따라 모든 집단에 무차별적으로 전염될 것이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셀러리맨도 외박 후 걸릴 수 있고, 고등학생도 첫 번째 성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학자들은 이 질병을 완전히 퇴치해 '에이즈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으나, 지금은 완치나 박멸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깨달아 유지요법을 통해 '에이즈와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목표를 바꾸게 되었다.

경험에서 걸릴 수 있으며, 순진한 가정주부도 하루아침에 감염될 수 있다.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차별제거가 급선무

에이즈가 나타난 후 20여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7000만명이 감염돼 그중 40%가 사망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조만간 2,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학자들은 이 질병을 완전히 퇴치해 '에이즈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으나, 지금은 완치나 박멸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깨달아 유지요법을 통해 '에이즈와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목표를 바꾸게 되었다.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것은 사회정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에이즈 예방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회에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면 감염인들이 감염 사실을 숨기게 되고 은둔하면서 에이즈의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감염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따뜻하게 포용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나아가 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복지 및 후생, 그리고 취업 문제를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금씩 분담해 해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사회단체가 구성돼 그 역할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조선일보 2002-11-29 기고문에서 발췌)

